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이용자의 학술정보이용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Library User Education on Users' Information Literacy

유 재 옥(Jae-Ok Yoo)**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인터넷정보활용 과목을 수강하는 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자교육을 제공한 전후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소요시간, 피험자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점수를 측정하였다. 이용자교육 후 약 8주 후에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여 교육의 효과가 지속하는지의 여부를 또한 조사하였다. 이용자교육은 피험자의 학술정보검색 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으며, 소요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스스로에 대한 정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교육은 원문검색이나 색인검색과 같은 고급학술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번 학습한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소 정보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cademic library user education contributes to promote users' information literacy. 39 students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participated voluntarily for this experiment. A test questions set about locating specific library materials was delivered to participating students, who were to find right answers for each test question. Their answers about test questions were measured in terms of success rate, time used to solve each problem. Self evaluation scores were also collected before and after giving them user education.

Academic library user educ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d participating students' ability to locate academic library materials through a library user interface. After receiving user education students were able to solve more successfully test questions, use less time for each question, and evaluate themselves more highly in terms of information utilizing abi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academic library user education was lasted for about 8 weeks after the education they received.

키워드: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 정보능력, 정보이용능력, 학술정보, 이용교육
User Education, Library Instructions, Information Literacy, Academic Libraries

* 본 논문은 2003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o@duk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6월 10일 논문심사일자 2004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9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정보의 홍수속에서 일반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한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생활정보는 다소 신뢰할 만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관한 배경 지식과 인터넷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학술정보에 관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나 학자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학술정보를 찾는 작업은 더욱 더 까다롭다. 생산되는 학술정보의 양이나 축적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거대할 뿐 만 아니라 학술정보가 담겨있는 정보의 유형도 복잡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했다 하더라도 정보검색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등, 원하는 학술정보를 검색하는 작업이 과거보다 더욱 더 난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요구를 가진 개인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보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인쇄본에 실려있던 학술정보는 이제 CD-ROM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다. CD-ROM에 실려있는 전자정보는 온라인에서 접근가능한 웹 정보로 가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정보가 다양한 정보매체(information resources)에 실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보원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 정보검색 기법이 다르므로 정보검색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찾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고 정보를 자신의 연구나 과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보편화가 가져온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낸 정보를 평가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정보를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활용능력이 특히 절실한 실정이다.

구미의 대학은 이러한 일련의 정보이용 능력을 특히 대학교육을 받는 동안 피교육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용기회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평생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보이용 능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의 심장역할을 하는 대학도서관은 학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초보자에서 정보 경력자로 교육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도서관투어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도서관의 복잡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용자교육을 제공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정보화사회에 들어선 현 시점에 더욱 더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목표나 이용자가 성취해야 할 정보이용 능력 수준이 높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1. 2 연구목적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을 학술정보의 적극적인 잠재이용자로 간주할 때 학술정보의 잠재이용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주 고객인 잠재 학술정보이용자들에게 이용교육을 제공했을 때 정보이용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는지의 여부와 개선 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한번 학습한 정보이용 능력은 지속하는지의 여부와 지속 정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이용자교육이 이용자들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가 유의미한 효과인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1. 3 연구문제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이용자의 학술정보이용 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과 일단 학습된 정보능력은 지속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해보고자 한다.

-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학술정보 검색 해결능력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학술정보 검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

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평가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이용자교육을 받은 후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학술정보 검색 해결능력은 교육 직후의 정보능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이용자교육을 받은 후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학술정보검색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있어 교육직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이용자교육을 받은 후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는 교육직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2004년 1학기에 설강하고 있는 인터넷정보활용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실험대상자로 정하였다. 인터넷정보활용 과목은 문헌정보학 전공자 2학년을 위해 개설한 과목으로 인터넷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과 검색기법 등을 수업하는 과목이다. 학술정보이용법에 관한 내용은 학기말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을 실시할 시점의 실험대상자들은 학술정보 이용지식 수준이 모두 동등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터넷정보활용 과목을 수강하는 총 3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대상자들은 먼저 본 연구자가 제공한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풀어서 제출한 후 바로 이어 학술정보검색 문

제폴이를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용교육을 받았다. 이용교육 직 후 피험자들은 동일한 학술정보검색문제를 다시 풀어 제출하였다.

첫 실험을 실행한 지 8주 후에 실험대상자들은 다시 동일한 학술정보검색문제를 받고 첫 실험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제출하였다.

2. 1 학술정보검색 문제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학술정보검색 문제는 다음의 네 종류이다.

- ① 도서검색: 인터넷과 정보활용 도서의 청구번호 찾기
- ② 학술잡지 소장정보 검색: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13권 21호의 소장여부 알아보기
- ③ 원문검색: 온라인 탐색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헌연구의 원문찾기
- ④ 색인DB검색: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에 관한 학술논문 검색하기

본 연구는 도서검색, 학술잡지검색, 원문검색, 색인검색 등 네 종류의 학술정보 검색문제를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도서검색과 학술잡지 검색은 학술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로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초보적 정보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잡지의 소장정보 검색은 도서검색과 달리 학술잡지의 권호 정보가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실험대상자들이 학술잡지의 권호 소장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원문검색과 색인검색은 고급 학술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능력이다. 원문과 색인검색 문제

는 실험대상자들이 학술잡지, 학술논문, 학위논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학술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피험자들이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피험자들이 이와 같은 정보유형을 구별한 다 할지라도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정보원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도서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원하는 사이트로 찾아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 해독능력과 항해능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요약하면 실험대상자들이 도서와 학술잡지, 학술논문, 학위논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색인 데이터베이스 사용 필요성을 알아야 풀 수 있는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고안하였다.

2. 2 실험대상자

실험대상자는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학생을 위해 설강하고 있는 인터넷과 정보활용 수강생 총 39명이었으며 대부분이 문헌정보학과 전공학생이며 기타 부전공자 8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2학년 학생이 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 4 학년도 9명이 참여하였다.

(표 1) 실험대상자의 전공분포

전 공	명(%)
문헌정보학	31(79.5)
중문학	3(7.7)
사회복지학	3(7.7)
사학	1(2.6)
경영학	1(2.6)
계	39(100.1)

(표 2) 실험대상자의 학년분포

학 년	명(%)
2학년	30(76.9)
3학년	6(15.4)
4학년	3(7.7)
계	39(100.0)

2. 3 실험방법

2004년 3월 5일 두 시간동안 전산실에서 수업을 하는 인터넷과 정보활용 시간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본 실험의 목적과 취지를 수강생들에게 설명하고 본 실험에 참여할지의 여부를 물었다. 출석자 전원인 39명이 본 실험에 참여할 것에 동의하였다.

연구자는 실험진행 방법과 피험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학술정보검색 문제지를 배포한 후 피험자들과 본 연구자의 시계를 모두 같은 시각으로 맞추었다. 다음은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한 문제씩 풀어나갔다.

동일한 시각에 피험자들이 모두 동시에 문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문제를 시작할 때 함께 시작시각을 명기하였으며 답과 함께 끝난 시각을 각각 적도록 하였다. 만약 문제를 일찍 풀 경우에는 다음 문제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요청하였다. 한 문제당 최대한 10분을 할애하였다. 총 4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0분 휴식을 가진 후에 연구자는 네 종류의 검색문제를 푸는 방법과 함께 관련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이용자교육을 약 30분동안 제공하였다. 피험자들은 본인의 문제지를 스스로 채점하고 자신의 정보능력점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채점한 문제지를 즉시 수집하였다.

다시 10분의 휴식을 가진 후에 동일한 문제지를 배포하고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교육 전에 실시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였다.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에 걸린 시간은 총 2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2004년 3월 5일 이용교육을 제공한 지 약 8주 후인 2004년 4월 30일에 이용교육 효과의 지속여부와 지속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재평가하였다. 도서검색 문제와 학술잡지 소장정보를 검색하는 두 문제에서 도서명과 학술잡지명을 바꾸었을 뿐 그 외에는 3월 5일 실험에 사용한 동일한 학술정보검색 문제지를 사용하였다. 실험방법도 3월 5일 실험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자료처리와 필요한 통계처리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4 변인

실험대상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인은 검색성공건수, 소요시간,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점수의 세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검색성공건수: 도서검색, 학술잡지 소장정보 검색, 원문검색, 색인검색 등 네 종류의 학술정보검색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공한 것을 검색성공으로 간주하였다.

도서검색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문제의 도서의 청구번호를 적은 것을 해답으로 간주하였다.

학술잡지 소장정보 검색에서는 소장여부를 명기하고 청구번호를 적은 것을 해답으로 간주하였다. 원문검색 문제에서는 원문이 소재하고 있는 사이트의 URL을 명기한 경우를 원문정보검색의 성공으로 결정하였다. 원문소재지가 웹사이트가 아닌 cd-rom의 경우와 웹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도 원문검색의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색인검색 문제에서는 사용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상관없이 색인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보고 해답의 URL을 확인하여 색인검색에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였다.

소요시간: 각 문제를 풀기시작한 때부터 문제의 답을 찾은 시각까지를 소요시간으로 간주하였다.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평가점수: 피험자들이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모두 끝낸 후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2. 5 제한점

본 연구의 실험대상자는 문헌정보학과 2학년 학생들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어 피험자가 덕성여자대학교의 학생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대학의 학생구성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험대상자로 문헌정보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기타 학과학생들 보다 학술정보검색에 보다 많은 지식이 축적된 학생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험대상자 선택이 편견없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험대상자 본인이 각각 끝난 시각을 적도록 하고 본인이 해답을 채점하게 하는 등,

실험절차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실험을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환경에서 수행했다면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각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초 단위까지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변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학술정보검색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가 고루 반영된 다수의 검색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이다.

3. 선행연구

3. 1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능력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실태조사 연구는 발견할 수 없으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고급 학술정보 이용능력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중 23%만이 색인을 사용하여 기사검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이용자들의 색인사용에서의 성공은 극히 취약하였으며,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고급 학술정보사용 능력의 저조한 실태를 나타낸 바 있다(유재욱 2002, p.68).

이러한 저조한 실태가 대학도서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색인에 접근하는 접근방식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주지는 못했으나 이용자가 도서관 인터페이스를 통해 색인 검색 성공비율이 23%에 불과하여 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한 이용자교육에 한계를 들어내기도 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온라인목록에서 주제탐색을 수행해야 할 때에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온라인목록을 통한 주제탐색시 온라인목록의 주제필드(55.2%)와 서명필드(42.2%)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주제탐색의 실패율은 59.3%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유재욱 1998, p.217).

또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온라인목록 사용시 실패하는 이유를 조사한 연구(유재욱 2000, p.144)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용자들은 주제 접근점에서 검색 실패율(19.8%)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주제 접근점에서의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온라인목록의 서명필드를 주제검색용으로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주제관련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원과 주제탐색기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국내연구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고급학술정보 검색능력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제검색에서 취약함을 보였는데 이는 색인 검색 기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실태를 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도서관의 잠재 연구자인 학생들의 고급 학술정보 이용능력은 국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교양잡지와 학술잡지의 차이를 특히 구별하지 못했으며, 도서관을 자료가 그저 혼란스러운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러한 이용자들에게는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의 교육이 보다 절실하다고 제안하고 있다(Daragan and Stevens 1996).

Geffert and Bruce(1977)는 St. Olaf's College 대학의 4학년 21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목록을 가장 편하게 사용했으며 15%의 조사대상자만이 전자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1996년 미국 Kent State University 의 24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도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색인(Indexes)이 학술기사를 검색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데에는 인식을 했으나 색인의 종류나 자신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적합한 색인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초록(abstracts)이나 인용(citations)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Kunkel, Weaver, and Cook 1996).

3. 2 이용자교육

대학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이용자교육의 교과과정, 내용, 성취수준, 범위 등을 정의한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1996년에 Shapiro and Hughes는 정보능력 교육은 도구사용능력(tool literacy), 정보원지식(resource literacy), 정보사회구조 지식(social-structural literacy), 연구능력(research literacy), 출판능력(publishing literacy), IT능력(emerging technology literacy) 등이 교과과정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 2000)은 대학의 잠재적인 연구자인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정보능력으로 정보과약능력, 정보접근능력, 정보분석능력, 정보이용능력, 정보판단 능력의 다섯 범주로 정의하였다.

한편 대학도서관도 이용자의 정보능력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자교육에 관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였는데 호주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는 정보능력 기준을 정보인식능력, 정보과약능력, 정보검색 도구사용능력, 정보이용능력, 정보비판능력, 정보이해능력 등으로 미국의 ARL의 기준과 대동소이하다.

호주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정보능력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교육, 정규교과목 수업, 다양한 프로젝트를 교수와 사서가 연계하여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용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노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California State University(CSU)는 1995년부터 교수와 사서 각 한 명으로 구성된 '정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를 교육시키고 있다. 웹상에서의 온라인교육 뿐만 아니라 학점을 이수하는 정규교과목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대학에서의 이용자교육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강대학교가 1975년부터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현재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 따르면 89개 대학가운데 12개 대학이 정규교과목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규교과

목으로 이용자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정보이용 능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부분의 국내 대학은 도서관이 이용자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투어,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안내 정도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1990년부터 사서가 도서관 이용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1991년부터 도서관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이용자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의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의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김정미 2002).

3. 3 이용자교육의 효과

Getty(2000)는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기 전후 연구에 참여한 실험대상자들의 정보능력 향상은 5퍼센트에 불과하여 이용자교육의 효과가 극히 저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이용자교육을 정규과목이 아닌 2학점의 패스/년패스 과목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하면서 이용자교육은 강의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Nichols, Shaffer, and Shockey(2003)는 강의를 통한 이용자교육과 웹상의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이용자교육의 유형이 강의를 통한 것이거나 혹은 온라인상의 이용자교육이거나 그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 이용자교육에서는 3.75점, 강의를 통한 이용자교육에서 5.83점의 능력의 향상을 보여 강의유형의 이용자교육의 효과가 온라인상의 이용자교육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한 이용자교육이 온라인상의 이용자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유형인지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용자교육에서는 교육의 유형보다는 이용자교육의 내용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간호학(Verhey 1999), 경영학(Fiegen 2002)의 교과목과 연계한 이용자교육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능력이 현저한 향상을 보여 교과목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368개 대학 중에서 86%인 315개 대학이 정식 학점을 주는 도서관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Boff 2002, p.281), 대학 신입생에게 이용자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전자정보서비스 사용법이나 색인 DB 사용법이 특히 학생들의 정보능력을 높이는데 유익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arley 2001).

이창수와 김신영(2003)은 국내 대학도서관도 외국의 경우처럼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행정당국의 지원, 교수와 사서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이용능력 교육의 개발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학술정보 이용능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네 종류의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이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여준 문제당 평균성공률은 35.3%로서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학술정보검색 문제당 실패율(64.8%)은 성공률(35.3%)보다 약 두 배정도나 높게 나타나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학술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에 참가한 39명의 피험자들중에서 38명(97.4%)이 도서검색문제를 해결하였으며, 13명(33.3%)이 학술잡지 소장정보를, 3명(7.7%)이 원문검색 문제를, 1(2.6%)명이 색인문제를 해결하였다.

도서검색에서는 거의 모든 피험자가 성공하였으나 학술잡지 소장정보 검색은 예상보다 저조하여 33.3%의 피험자만이 특정 학술잡지의 소장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원문이나 색인사용법과 같은 고급학술정보이용 능력은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원문검색과 색인검색시 성공한 피험자는 각각 7.7%, 2.6%에 불과하였다.

원문DB나 색인DB는 대학의 잠재 연구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고급 학술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고급 학술정보 검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4. 연구결과

4.1 학술정보이용능력

먼저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기 전 피험자들의

(표 3) 학술정보검색 해결능력

문제종류	성공(%)	실패(%)	계(%)
도서검색	38(97.4)	1(2.6)	39(100.0)
학술잡지검색	13(33.3)	26(66.7)	39(100.0)
원문검색	3(7.7)	36(92.3)	39(100.0)
색인검색	1(2.6)	38(97.4)	39(100.0)
평균	14(35.3)	25(64.8)	

4. 2 소요시간

피험자들이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은 한 문제당 평균 5분으로 나타나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검색문제에 투자한 시간은 0.74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원문검색은 약 8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학술잡지의 소장정보 검색문제에 소요한 시간은 4.21분, 색인사용 문제에서는 7분을 사용하여 원문검색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검색 문제를 해결한 피험자는 39명 중 3명(7.7%)뿐이었다. 특히 원문검색 문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경우는 15분을 사용한 피험자였으나 결국 원문검색에 실패하였다.

색인검색 문제에서 피험자들은 평균 7분을 사용하였다. 원문보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39명의 피험자중에서 단 1명 만이 색인검색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성공률은 2.6%에 불과하였다. 색인검색문제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경우는 10분이었으며 39명의 피험자중 삼분의 일인 13명이 10분을 사용하였다.

(표 4) 소요시간

N=39	
문제종류	평균소요시간(분)
도서검색	0.74
학술잡지검색	4.21
원문검색	7.85
색인검색	7.00
평 균	4.95

4. 3 정보능력점수

이용교육을 제공하기 전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풀어 본 후 피험자들은 본인의 정보능력점수를 100점 만점기준으로 평가하였다. 39명 중 23명만이 응답을 했으며 평가점수는 평균 41.5점으로 나타나 피험자들은 스스로에게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 정보능력점수

정보능력점수	
평균	41.5
N	23

4. 4 이용자교육의 효과

한편 피험자들에게 이용자교육을 제공한 후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교육을 받은 피험자들은 교육을 받기 전보다 학술정보검색 문제해결 건수가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한 소요시간은 단축되었으며, 자신의 정보능력평가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평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피험자들에게 제공한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의미있게(<.001) 기여했음을 볼 수 있다.

4. 4. 1 학술정보 이용능력의 향상

이용자교육을 실시한 후의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검색문제 해결능력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피험자들이 보여준 문제당 평균 성공률은 35.3%에 불과하였으나 교육 후에는 평균 성공률이 94.9%로 약 60%

나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검색문제 당 평균 실패율이 64.8%였으나 교육 후에는 5.2%로 약 60%나 감소하여 이용자교육이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해결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교육은 색인검색과 원문검색능력 향상에 특히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색인검색 문제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향상율을 보였는데 87.4%의 향상율 증가를 보였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원문검색문제 해결에서도 나타났는데 82.3%의 향상율 증가를 보여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색인검색과 원문검색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나타난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해결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를 paired t-test로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서검색을 제외한 학술잡지, 원문, 색인검색 등의 세 종류의 검색문제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001)한 것으로 나타나 피험자들의 학술잡지, 원문, 색인등의 학술정보검색 능력의 개선은 이용자교육의 효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4. 4. 2 소요시간의 단축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표 8에서와 같이 학술정보 검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에서도 나타났는데 원문검색과 색인검색에서 특히 시간절약 효과가 있었다.

도서검색에서는 29초의 시간절약 효과가 있었으며 학술잡지 소장정보 검색문제에서는 3분

(표 6) 이용자교육 전후의 학술정보 해결능력의 비교

문제종류	교육 전		교육 후	
	성공(%)	실패(%)	성공(%)	실패(%)
문제종류	38(97.4)	1(2.6)	39(100.0)	0(0.0)
도서검색	13(33.3)	26(66.7)	39(100.0)	0(0.0)
학술잡지검색	3(7.7)	36(92.3)	35(89.7)	4(10.3)
원문검색	1(2.6)	38(97.4)	35(89.7)	4(10.3)
색인검색	14(35.3)	25(64.8)	37(94.9)	2(5.2)

N=39

(표 7) 학술정보검색 능력의 이용자교육 효과 - 교육 직후

문제종류	Paired Differences				t	df	Sig.(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도서검색	.03	.160	.026	.03	.08	1.000	38	.324
학술잡지검색	.67	.478	.076	.51	.82	8.718	38	.000
원문검색	.82	.389	.062	.69	.95	13.180	38	.000
색인검색	.87	.339	.054	.76	.98	16.075	38	.000

(표 8) 이용자교육 전후의 소요시간 비교

문제종류	교육 전(분)	교육 후(분)	t value	df	sig(2-tail)
도서검색	0.74	0.26 (▼0.48)	2.714	38	.010
학술잡지검색	4.21	0.64 (▼3.57)	11.613	38	.000
원문검색	7.85	1.56 (▼6.29)	17.550	38	.000
색인검색	7.00	2.08 (▼4.92)	8.386	38	.000
평균	4.95	1.14 (▼3.82)			

N=39

34초가 단축되었다. 원문검색에서는 6분 26초가 단축되었고 색인검색에서는 약 5분이 단축되었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소요시간 변수로 볼 때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곳은 원문검색으로 이용교육 전보다 약 5분이나 시간이 절약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용자교육의 시간절약 효과는 한 검색문제를 위해 교육 전에는 약 5분을 사용한 것에 비해 교육 후에는 약 1분을 사용함으로써 약 4분의 시간 단축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용자교육은 학술정보검색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소요시간에서도 절약효과를 나타냈다. 도서검색에서는 그 효과가 약하지만 (<.01) 그 외의 학술잡지, 원문, 색인 등의 학술정보검색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유의미 (<.001)한 시간절약 효과를 낸 것으로 이용자교육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4. 4. 3 정보능력 평가점수의 향상

이용자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피험자들은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을 100점 만점 기준 점수로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은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에는 본인의 정보능력 점수를 41.5점으로 평가하였으나 교육을 받고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풀어본 후에는 76.3점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보다 약 35점이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에는 최저 평가 점수가 10점이었고 최고 평가 점수가 70점이었다. 교육을 받은 후에는 최저 점수가 50점이었으며 최고 점수가 100점으로 나타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이용자교육을 받은 후에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용자교육이 피험자들에게 본인의 정보이용 능력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유의미 (<.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4. 5 이용자교육의 지속효과

이용자교육 후 8주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험자들의 학술정보해결 능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표 9) 이용자교육 전후의 정보능력 자기평가 점수

	교육 전	교육 후	t value	df	sig(2-tailed)
평균점수	41.5	76.3	11.633	22	.000
N	23	23			

투자하는 시간에 변화가 있는지,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용자교육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험자들의 학술정보해결능력이 교육 직후에 습득한 학술정보 해결능력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했으나 교육을 받기 전의 능력보다는 현저히 높은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도 이용자교육 직후보다는 다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을 받기 전의 소요시간보다는 현저히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정보검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점수는 이용자교육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자교육 직후의 평가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부과하였다. 한번 습득한 본인의 학술정보이용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 1 학술정보해결 능력의 변화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용자교육 직후에 습득한 피험자의 학술정보해결 능력은 모든 검색문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떨

어졌다. 이용자교육 직후의 피험자의 학술정보검색 문제당 성공률은 94.9%였으나 교육 8주후에는 80.0%로 떨어졌다. 약 15%의 성공률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 전의 학술정보검색 문제당 성공률 35.3%에 비교하면 여전히 44.7%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일단 습득한 학술정보이용 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문검색능력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습득한 능력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색인검색에서는 이용자교육 직후에 습득한 능력이 13%나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검색과 색인검색 능력에 있어서는 이용자교육 전의 능력과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001) 능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교육 8주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저하게 능력이 떨어진 부분은 학술잡지 소장정보검색 문제였는데 본 대학의 도서관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권 4호를 소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피험자들은 학술잡지의 소장정보 파악에 여전히 어려움을 보였다. 소장정보에 관한 정보제공 아이콘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눈에 쉽게

(표 10) 학술정보검색 해결능력의 변화

문제종류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8주 후(%)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도서검색	38(97.4)	1(2.6)	39(100.0)	0(0.0)	35(100.0)	0(0.0)
학술잡지검색	13(33.3)	26(66.7)	39(100.0)	0(0.0)	19(54.3)	16(45.7)
원문검색	3(7.7)	36(92.3)	35(89.7)	4(10.3)	32(91.4)	3(8.6)
색인검색	1(2.6)	38(97.4)	35(89.7)	4(10.3)	27(77.1)	8(22.9)
평균	14(35.3)	25(64.8)	37(94.9)	2(5.2)	28(80.0)	7(20.0)
N	39		39		35	

(표 11) 학술정보검색 능력의 이용자교육 효과 - 교육 8주 후

문제종류	Paired Differences					t	df	Sig.(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도서검색	.03	.169	.029	.03	.09	1.000	34	.324
학술잡지검색	.20	.759	.128	.06	.46	1.558	34	.128
원문검색	.83	.382	.065	.70	.96	12.819	34	.000
색인검색	.74	.505	.085	.57	.92	8.695	34	.000

띄지 않고 숨어있어 피험자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4. 5. 2 소요시간의 변화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이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에 있어서도 절약 효과는 나타냈는데 이용자교육 직후가 가장 시간절약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교육 약 8주 후에는 각 문제당 투자시간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용자교육 전에는 하나의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약 5분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교육 직후에는 1분 8초로 감소하여 약 80%의 시간절약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 약 8주 후에는 교육 직후보다 시간이 약 두 배가량 소요되어 한 문제당 평균 2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

교육 전의 문제당 평균 소요시간 5분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교육 전보다 약 60%의 시간절약 효과를 보였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는 이용교육 8주 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검색문제만을 제외한 학술정보검색 문제 해결에 투자한 시간변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001)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3 참조).

4. 5. 3 정보능력평가의 변화

이용자교육을 받기 전 피험자들이 평가한 자신의 정보능력 점수는 41.5점이었다. 교육 직후에는 76.3점으로 약 35점이나 증가하였다.

이용자교육 8주 후에도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점수는 이용교육 직후의 평가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3.2

(표 12) 소요시간의 변화

문제종류	교육 전(분)	교육 직후(분)	교육 8주 후(분)
도서검색	0.74	0.26 (▼0.48)	0.34 (▲0.08)
학술잡지검색	4.21	0.64 (▼3.57)	1.86 (▲1.22)
원문검색	7.85	1.56 (▼6.29)	4.20 (▲2.64)
색인검색	7.00	2.08 (▼4.92)	1.97 (▼0.11)
평균	4.95	1.14 (▼3.81)	2.09 (▲0.95)
N	39	39	35

(표 13) 소요시간의 이용자교육 효과 - 교육 8주후

문제종류	Paired Differences					t	df	Sig.(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도서검색	.26	.919	.155	.06	.57	1.656	34	.107
학술잡지검색	2.07	1.926	.358	1.34	2.80	5.785	28	.000
원문검색	3.63	2.276	.385	2.85	4.41	9.431	34	.000
색인검색	4.94	3.447	.583	3.76	6.13	8.484	34	.000

점 소폭 상승하고 있어 이용자교육 후에도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피험자들의 정보능력은 이용자교육 직후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에 대해 느끼는 자신감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비록 일회성의 이용자교육이었으나 한번 습득한 교육의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일정수준으로 지속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4) 정보능력 평가점수의 변화

	교육 전	교육 직후	교육 8주후
평균점수	41.5	76.3	79.5
N	23	23	3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용자교육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대학의 잠재적 연구자인 학생들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의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용자교육은 이용자의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인터넷과 정보활용 과목을 수강하는 3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방법을 기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이용자교육 전 후에 배부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피험자들의 정보능력을 학술정보 검색문제의 해결 건수와 소요시간,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점수로 측정하였다. 이용자교육 후 약 8주가 지난 후에도 이용자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았다.

1. 피험자들의 전반적인 학술정보 이용능력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나의 학술정보 검색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된 비율은 35.3%로서, 실패율(64.8%)이 성공률보다 약 두 배 정도나 높았다.

2. 피험자들의 고급 학술정보 이용능력은 특히 저조한 수준이었다.

단행본 검색은 대부분(97.4%)의 피험자가 성공하였으나 학술잡지에 대한 소장정보 검색은 33.3%로 낮았다. 원문검색(7.7%)이나 색인사용(2.6%) 검색에서의 성공은 극히 저조하였다.

원문DB나 색인DB는 대학의 잠재 연구자에

게는 반드시 필요한 고급 학술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험자들의 고급 학술정보 활용 능력은 극히 저조하였다.

3. 피험자들은 하나의 학술정보검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약 5분의 시간을 투자하였다. 원문검색이나 색인검색과 같은 고급 학술정보 검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평균보다 높은 약 8분과 7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검색 성공률은 각각 7.7%, 2.6%로 극히 낮아 고급 학술정보 이용은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4.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검색 능력을 의미있게(.001) 향상시켰다.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검색문제 해결능력을 60%나 향상시켰으며, 정보해결을 위해 투자한 시간도 80%나 단축시켰다. 이용자교육을 제공하기 전의 피험자의 학술정보 검색문제당 성공률은 35.3%였으나 교육 후에는 94.9%로 약 60%의 괄목할 만한 향상율을 보였다. 소요시간도 문제당 약 5분에서 약 1분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5.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 본인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를 의미있게 향상시켰다.

이용자교육 후 스스로에 대한 정보능력 점수를 76.3점으로 평가하였는데 교육전에 평가한 점수 41.5점 보다 약 35점이나 높은 점수였다. 이용자교육은 스스로에 대한 학술정보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6. 이용자교육은 고급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피험자들은 이용자교육 후 원문검색에서 82.3%, 색인사용 검색에서 87.4%의 괄목할 만한 향상율을 보였다. 이용자교육은 원문검색과 색인검색에서 교육효과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험자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의미있게(<.001) 기여하였다.

7. 이용자교육은 교육 후 8주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험자들의 학술정보 이용능력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어 교육의 효과는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험자 자신에 대한 정보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8. 본 연구는 이용자교육이 학술정보 이용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용자들에게 특히 고급학술정보 이용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면 학술정보 활용능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9. 이용자교육은 피험자들의 정보능력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교육효과는 지속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용자교육을 받은 이용자들은 정보활용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대학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평생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일차적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은 이러한 대학의 교육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프로그램의 비교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7-320.
- 김중은. 2002. 대학도서관의 정보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교육사례연구. 『도서관』, 57(4):63-84.
- 유재욱. 1998. 온라인목록 이용자의 주제탐색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4): 209-226.
- 유재욱. 2000. 온라인목록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탐색실패요인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7(2): 139-153.
- 유재욱. 2002. 웹 기반 대학도서관서비스의 사용편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13(1): 59-75.
- 이란주. 2001. 대학도서관 웹기반 이용자교육에 대한 고찰. 『사대도협회지』, 2: 57-72.
- 윤혜영. 2002.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의 최근추세. 『중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논문집』, 6(2): 89-103.
- 이창수, 김신영. 2003. 정보이용능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231-250.
- 함명식. 1999. 정보능력개발을 위한 컴퓨터 정보이용 교육과정 :교과교육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3): 127-144.
-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ited 2002.10.12]. <http://www.ala.org/acrl/ilcomstan.html>
- Boff, Colleen, and Johnson, Kristin. 2002. The Library and First-year Experience Courses: A Nationwide Study. *Reference Services Review*, 30(4): 277-288.
- Daragan, P., and Stevens, G. 1996. Developing Lifelong Learners: An Integrative and Developmental Approach to Information Literacy. *Research Strategies* 14(2): 68-81.
- Enger, Kathy Brock et. al. 2002. Problem-based Learning: Evolving Strategies and Conversations for Library Instruction. *Reference Services Review*, 30(4): 355-359.
- Fiegen, Ann M., Cherry, Bennett and Watson, Kathleen. 2002. Reflections on Collaboration: Learning Outcomes and Information Literacy Assessment in the Business Curriculum. *Reference Services Review* 30(4): 307-319.
- Geffert, B., and Bruce, R. 1997. Whither BI? Assessing Perceptions of Research Skills over an Undergraduate Career. *RQ* 36: 409-417.
- Getty, Nancy K. et. al. 2000. Using Courseware to Deliver Library Instruction via the Web:Four

- Examples. *Reference Services Review*, 28(4): 349-360.
- Harley, Bruce. 2001. Freshmen, Information Literacy, Critical Thinking and Values. *Reference Services Review* 29(4): 301-306.
- Kunkel, L.R., Weaver, S.M., and Cook, K.N. 1996. What Do They Know: An Accessment of Undergraduate Library Skills. *Jr. of Academic Librarianship*, 22: 430-434.
- McCartin, Marybeth and Feid, Paula. 2001. Information Literacy for Undergraduates: Where Have We Been and Where Are We Going?. *Advances in Librarianship*, 25: 1-28.
- Nichols, James, Shaffer, Barbara, and Shockey, Karen. 2003. Changing the Face of Instruction: Is Online or In-class More Effectiv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4(5): 378-388.
- Raquepau, Cynthia A., and Richards, Louise M. 2002. Investigating the Environment: Teaching and Learning with Undergraduates in the Scien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0(4): 319-324.
- Shapiro, Jeremy J. and Hughes, Shelley K. 1996. Information Literacy as an Liberal Art. *Educom Review* [online], 31(2).[cited 2002.11.10] <http://www.educause.edu/pub/er/review/reviewArticles/3123.html>
- Verhey, Marilyn P. 1999. Information Literacy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urriculum: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Jr. of Nursing Education*, 38(6): 252-260.